



초등부  
소년부  
약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초등/소년부 교육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FUN FUN PLAY  
친구들이 재미있게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 contents

교육 내용 .....04

##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 \*둘째 주\*

분반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English Bible Study .....28

##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4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5

어린이 QT God's Time .....36

##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7

어린이 QT God's Time .....48

## \*다섯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5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59

어린이 QT God's Time .....60

## \*편편 플레이\*

암호풀기 ..... 70

말씀풍선 ..... 71

\*워드포토\* ..... 72

\*워드큐티스티커\* ..... 73



5월 교육내용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암송  
구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 -

♥첫째주♥

“허명과 실명”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열왕기상 10장 1절)  
\*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요.

♥둘째주♥

“귀 기울여  
들을 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창세기 49장 2절)  
\*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실천해요.

♥셋째주♥

“끝까지  
말해줍시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열왕기상 9장 4절)  
\* 사랑하는 마음으로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넷째주♥

“일기와 자서전”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  
\*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풀며 살아요.

♥다섯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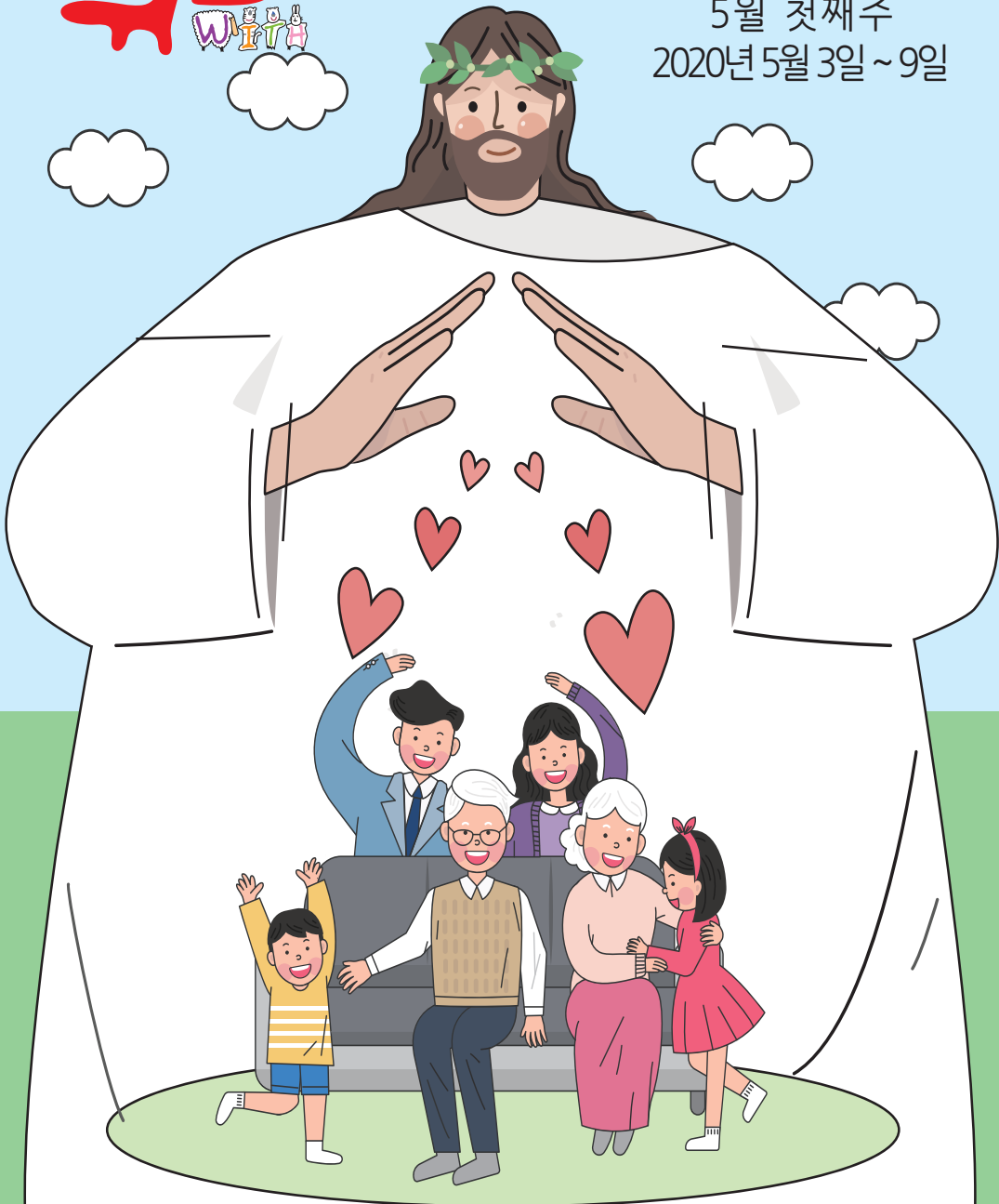
“의에 주리고  
목마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6절)  
\*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실천  
내용

1.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믿고 가족을 위해 기도해요.
2.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실 만한 행동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아요.

5월 첫째주  
2020년 5월 3일 ~ 9일



# Memory Time



## 허명과 실명

### 첫째주

♥ 주제 :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 암송구절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열왕기상 10:1

♥ 오늘의 주제 : 허명과 실명 ▷열왕기상 10:1-10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요.

###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1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무엇을 듣고 찾아왔나요? (1절)
- 2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와 무엇을 하였나요? (1절)
- 3 O/X 퀴즈 - 솔로몬은 스바의 여왕이 낸 문제를 하나도 풀지 못했다. (3절)
- 4 솔로몬의 대답을 들은 스바의 여왕은 누구를 찬양하였나요? (9절)
- 5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았다면, 함께 나누어 보아요.

# 가족과 함께하는

# Sweet Time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의 지혜와 명철은 여러 이웃 나라에 까지 알려졌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명성을 전해들은 스바의 여왕이 그를 찾아왔어요.

스바 여왕은 자신이 듣던 대로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에게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솔로몬은 그 문제들을 조금의 막힘도 없이 풀어냈어요. 이를 본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면서 자신이 가져온 수많은 예물들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솔로몬이 어려운 문제를 막힘없이 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이에요.(1절)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해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Pray** 우리 가정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게해주세요.

# GOD'S TIME 1

## 첫째주

날짜: 2020. .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창세기 25:19-26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9.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20. 이삭은 마흔 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아람의 아람 사람인 브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21.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 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었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22.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
23. 어 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24.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25.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
26. 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예순 살이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이삭은 몇 세 때 결혼을 했고, 몇 세 때 자녀를 낳았나요?(20, 26절)

이삭이 결혼 한 나이 :   세

이삭이 자녀를 낳은 나이 :   세

2.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자녀들은 누구인가?(25, 26절)

,

with  
생각

이삭은 40세가 되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리브가였지요. 결혼을 한 후, 20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 기도의 결과로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쌍둥이는 리브가의 태 속에서 어찌나 뒤척이고 발길질을 해대던지, 이 일이 어찌 된 일인지 리브가는 하나님께 여쭙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네 태 속에 두 민족이 있고 두 민족이 네 몸 속에 있는 동안 서로 다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해산할 날이 다 되어 리브가는 출산을 했는데, 첫째는 피부가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했고, 뒤 이어 나온 동생은 형의 발뒤꿈치를 꼭 붙잡고 있어서 “야곱”이라고 했어요.

with  
결심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한 후, 20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받을 수 있는 복이었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오랜 시간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21절) 20년이라는 세월은 참으로 긴 시간이었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가 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_\_\_\_\_  
\_\_\_\_\_

#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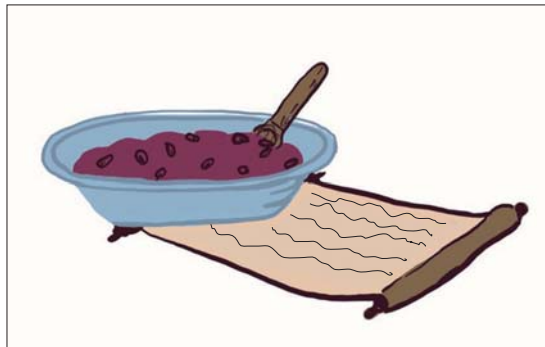
창세기 25:27-34 “우선순위를 정해요.”

27.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씬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28.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29.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30.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31.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만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32.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보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만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33.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만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34. 야곱이 빵과 팔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만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다음은 성경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성격입니다. 다음 빈칸을 완성시키세요.

“□□는 날쌔 사냥꾼이 되어서 □□에서 살고,  
□□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에서 살았다.”

2. 죽을 달라고 하는 에서에 야곱은 무엇을 팔라고 말했나요?

□□□□의 □□

with  
생각

에서와 야곱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에서는 밖에서 지내기 좋아하는 노련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 안에서 생활하기 좋아하는 차분한 사람이 되었지요.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쑤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내가 배가 고프니 그 붉은 죽을 좀 다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 말했어요. “형, 나와 거래합시다. 내가 꿩인 죽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맞바꿉시다.” 에서는 배가 고프 나머지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맹세를 한 후, 장자의 권리를 팔아 넘겼어요. 에서는 배가 고프 나머지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내던져 버린 것이예요.

with  
결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장시대의 장자의 권리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산을 두 배나 상속받을 수 있었고, 한 집안의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권을 가질 수 있었지요. 에서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자의 권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권한을 자신의 배고픔으로 인해 가볍게 내던져버린 것이예요.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이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장자의 권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것을 갖고 싶었던 것이예요. 이 세상이 주는 만족보다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가진 것이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_\_\_\_\_

#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26:1-25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2.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백 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13.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14. 그가 양 떼와 소 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15.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흠으로 매워 버렸다.

(생략)

17.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18.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판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매워 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19.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20.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섹이라고 불렀다.
21.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시나라고 하였다.
22.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 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23.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24. 그 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25.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을 빼앗자, 이삭은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겨 다닙니다. 이 때 이삭이 팠던 우물들의 이름을 모두 적어보세요.

□	□	□	□	□	□	□
---	---	---	---	---	---	---

2.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삭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는 어디인가요?(23절)

□	□	□	□
---	---	---	---

with  
생각

이삭이 살던 때, 극심한 흉년이 들자 이삭은 그랄 땅으로 갔어요. 좀 더 나은 곳을 찾아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후, 그랄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곳에서 곡물을 심어 엄청난 수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가능했던 것이에요. 이삭은 점점 더 부유해져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지요. 이것을 바라본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양심을 품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모든 우물을 훔과 쓰레기로 막아버리고 이삭에게 떠나라고 말했어요. 이삭은 속이 상했지만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정착했어요. 그곳에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물이 솟아났는데,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이 물은 우리 것이오.’라고 주장하며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어요. 하지만 이삭은 다투지 않고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곳에서도 물이 나오자 또 다시 찾아와 다툼이 일어났지만, 이번에도 이삭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우물을 두고 다툼이 일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with  
결심

이삭이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고 있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매일 기억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26:26-35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6. 아비멜렉이 친구 아훗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27.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28.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29.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30.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31.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32. 그 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나왔다고 보고하였다.
33.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34. 에서는, 마흔 살이 되는 해에, 헛 사람 브에리의 딸 유딿과, 헛 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35.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올 때, 같이 온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5절)

,

2. 이삭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고 난 후, 우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고, 그 성읍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불리었나요?

,

with  
생각

이삭을 쫓아내었던 그랄 지역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이삭은 “그대들이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그대 편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대와 우리 사이에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편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었어요. 이삭은 그랄 지역에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었지만, 아비멜렉의 진심을 보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서로 맹세를 주고받았어요. 그날 늦게 이삭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자신들이 파고 있던 우물에서 물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맹세라는 뜻의 “세바”라고 부르고, 그 성읍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 “브엘세바”가 되었어요.

with  
결심

이삭을 쫓아 낸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어요. 이삭은 살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에 왔었지만(1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엄청난 수확을 할 수 있었고(12절), 가는 곳마다 우물에서 물이 솟아날 수(20-22절)있었어요. 아비멜렉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웠던 것이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아비멜렉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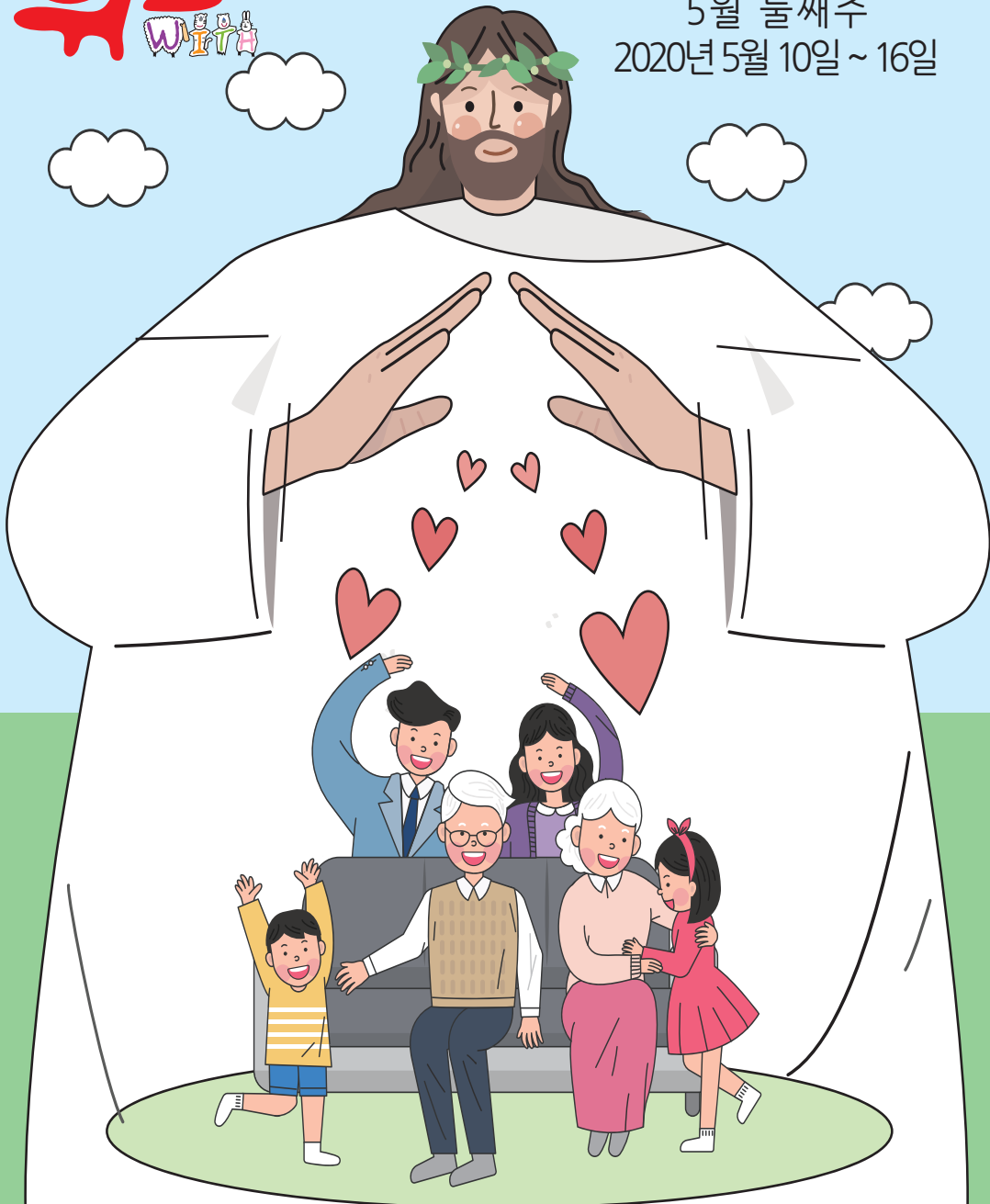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 로마서 14장 10절 -







5월 둘째주  
2020년 5월 10일 ~ 16일



# Memory Time



## 귀 기울여 들을 일

### 둘째주

♥ 주제 :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 암송구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창세기 49:2

♥ 오늘의 주제 : 귀 기울여 들을 일 ▷창세기 49:1-2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실천해요.

###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야곱은 누구를 불렀나요? (1절)
- ②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무엇을 말했나요? (1절)
- ③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야곱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만약,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할지 친구들과 나누어 보아요.

### ★ 교육 활동 -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정”

준비물 : 활동지(별지), 가위, 풀, 볼펜, 색깔종이컵

- ①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적어보아요.
- ② 그리고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전할 축복의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가능하다면, 주일 전날까지 부모님께서 담임선생님 혹은 친구들 편으로 보내주세요.)
- ③ 반별로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보아요.
- ④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매일 축복의 메시지를 읽어보아요.

# 가족과 함께하는

# Sweet Time



## 둘째주

요셉은 야곱이 나이가 들어 병 들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야곱을 찾아갔어요. (창48장) 야곱은 그를 찾아온 요셉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었지요. 그 후, 야곱은 그의 모든 자녀들을 불러 모아 말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2절, 새번역)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야곱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그의 자녀들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대해 알려주고, 그들을 축복해주었어요. 그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랐기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실천함으로 복을 누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Pray**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가정이 되게해주세요.

#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27:1-45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25.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네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 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가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26.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 다오."
27.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28.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 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29.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30.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이삭은 야곱의 무엇 때문에, 에서인 줄 착각하고, 복을 빌어 주었나요? (27절)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2. 야곱은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맞는 것을 고르세요. (28-29절)

- ① 하늘에서 기름을 내려 주실 것이다.
- ②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 ③ 여러 민족에게 굴복하게 되고, 백성들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 ④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with  
생각

이삭은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져서 야곱과 에서를 구별하기가 어려웠어요.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 사냥을 보냈어요. 이를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별미를 만들어 이삭에게 보냈어요. 이삭은 야곱이 입고 있던 에서의 옷의 털과 그 옷에서 나는 에서의 냄새 때문에 에서인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하지만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해 주셨지요. 야곱처럼 속이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with  
결심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축복해주셨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어요. 우리는 야곱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고, 빼앗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는 믿음을 주세요.

나의 기도 :

---



---



---



---

# GOD'S TIME 2

##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27:46-28:9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2. 이제 곧 밧단아람에 계시는 브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네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3.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네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4.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도 주셔서, 네가 지금 나그네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5. 이렇게 복을 빌어 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다.
6.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7.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밧단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이삭은 야곱에게 어디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였나요? (2절)

“이제 곧     에 계시는 브두엘 외할아버지  
덕으로 가서...”

2.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나요? (8절)

“...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with  
생각

이삭은 야곱의 거짓말을 알게 되었지만, 야곱을 저주하지 않고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야곱을 불러 축복한 다음,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냈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아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도록 당부했어요.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해주고, 밧단아람으로 보냈어요.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밧단아람으로 떠났어요.

with  
결심

이삭은 야곱의 거짓말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야곱을 용서해주  
었어요. 용서만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도 해주었어요.  
우리도 이삭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는 친구들이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

---

---

#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28:10-22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생략)
-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 곳은 다름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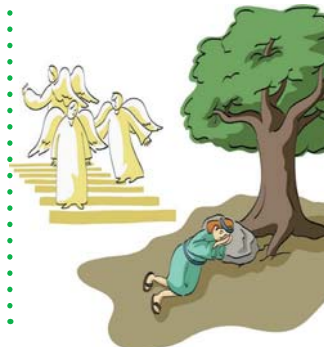
Check

Q. 단어사전

층계 : 계단

베델 : 개역개정에서 베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서원 : 하나님 앞에서 자  
기 마음속에 맹세하여 소  
원을 세움. 또는 그 소원.





with  
관찰

1. 야곱은 무엇을 보고 잠이 들었나요? (11절)

“그는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2. 야곱이 잠에서 깨어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다음 무엇이라 불렀나요?

with  
생각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에 어떤 곳에 이르러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잠이 들었어요. 그때 꿈을 꾸었는데, 땅에 계단이 세워져 있고 그 끝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몰랐구나!”라고 말했어요.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with  
결심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형 에서를 속이기까지 했지요. 하지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나의 기도 :

---

---

---

# GOD'S TIME 4 둘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창세기 29:1-20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야곱이 출근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생략)
13.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14.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붙이 이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15.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 보자."
16.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17.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다.
18.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칠 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 드릴 터이니, 그 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19.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20.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칠 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칠 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보수: 일을 하는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

용모: 사람의 얼굴 모습

with  
관찰

1. 라반의 딸중에 눈매가 부드러운 첫째 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몇 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하였나요? (20절)

년

with  
생각

야곱은 먼 길을 걸어 라반의 집에 도착했어요. 라반은 누이의 아들인 야곱을 보고 반갑게 맞이해주었어요.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야곱은 둘째 딸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7년 동안 일을 하면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며칠처럼 느끼고 일을 해주었어요.

with  
결심

야곱은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는 아버지 이삭의 말에 순종했어요.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며 인내했어요. 긴 시간이었지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참고 견뎠어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참고 인내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맡겨진 일들을 잘 견뎌내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잘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

---

---

# ENGLISH BIBLE STUDY



마태복음 28장 16-20절 (새번역성경) / Matthew 28:16-20 (NIRV)

Determination—Deciding it’s worth it to finish what you started  
결단-시작한 일을 끝내기로 결심하는 것.

16.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Matthew 28:16-20 (NIRV)

16. Then the 11 disciples went to Galilee. They went to the mountain where Jesus had told them to go.
17. When they saw him, they worshiped him. But some still had their doubts.
18. Then Jesus came to them. He sai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19. So you must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e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20. Teach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you can be sure that I am always with you, to the very end.”

## Vocabulary

Doubt- 의심

Baptize- 세례를 주다

Command- 명령하다

## Observation

Write the missing letters.

19 So you must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_\_\_\_\_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20 Teach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_\_\_\_\_ you. And you can be sure that I am always with you, to the very end.”

## Interpretation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모아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도 불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말씀에서 ‘의심’ 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머뭇머뭇하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것을 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 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부족했고 결단력이 부족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고 명령하셨어요. 이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차례가 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결단하기를 원하셨어요.

# ENGLISH BIBLE STUDY



## Application

It is so easy for us to hesitate in front of things that we have to do, and are worth accomplishing. People back then were the same. They had seen Jesus doing amazing things. They had seen him dying and they had seen him alive again. But this wasn't enough. They didn't have the courage and determination to live as His apostles. But we shouldn't hesitate. Those were the words of Jesus and we have no other choice then to follow them. Whenever we feel like we are not sure how to act, we have to remember His life, His sacrifice, and His resurrection. And we have to determine to live as His apostles. That is the most valuable way to live a life.

우리는 해야 할 일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 앞에서 주저하곤 해요.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 또한 보았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도로 살아갈 용기와 결단력이 없었어요. 우리는 주저하면 안돼요. 예수님께서서는 명령을 내리셨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을 가서는 안돼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예수님의 삶과 그의 그의 희생과 부활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의 사도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요. 이것이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 내는 길이예요.

Let's memorize

Let's memorize Matthew 28:19, NIRV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외워보도록 해요.

“So you must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e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 Matthew 28:19, NIRV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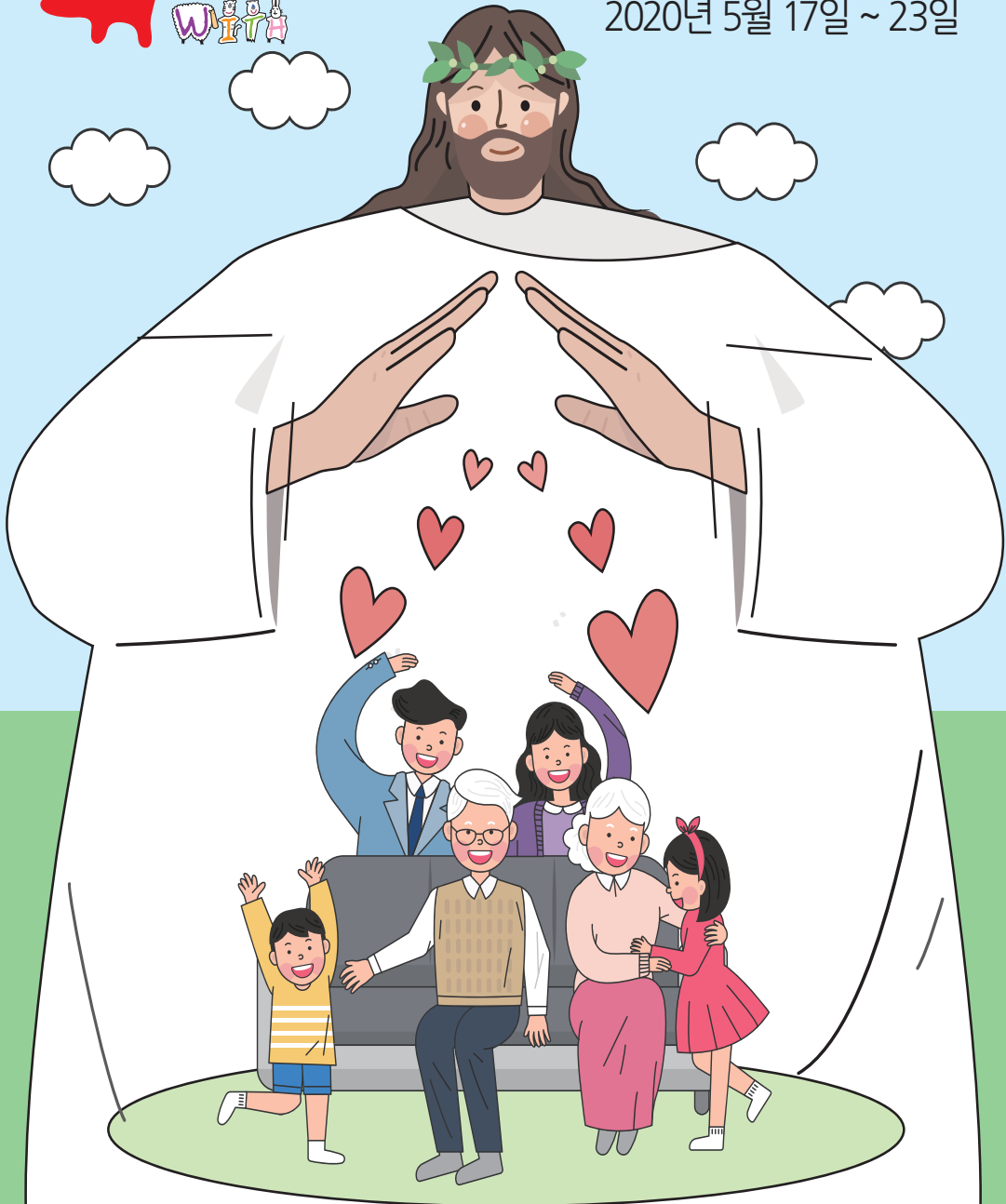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 로마서 14장 10절 -







5월 셋째 주  
2020년 5월 17일 ~ 23일



# Memory Time



끝까지 말해줍시다

셋째주

♥ 주제 :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 암송구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열왕기상 9:4

♥ 오늘의 주제 끝까지 말해줍시다 ▷열왕기상 9:1-9  
사랑하는 마음으로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 1 여호와께서는 언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나요? (1절)
- 2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3절)
- 3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셨나요? (4절)
- 4 여호와께서는 어떠한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나요? (6절)
- 5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나누어 보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로 다짐해요.

# 가족과 함께하는

# Sweet Time



솔로몬은 의로운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렸어요. 그는 아버지 다윗의 꿈이었던 성전 건축을 아주 멋지게 해냈어요. 그 후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다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그들을 축복하겠노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던져버리시겠다고 무섭게 경고하셨어요.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이 끝난 후 자칫 교만하고 편안해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엄하게 훈계해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요. 친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엄한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지요. 하나님과 부모님의 훈계에 귀 기울이며 그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Pray 우리 가정이 편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 주세요.

#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29:21-35 “인내하며 기다려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1. 칠 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22.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 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23.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 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24.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25.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 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럴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 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26.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27. 그러니 이레 동안 **초례**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칠 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28.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레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29. 라반은 여종 빌하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30.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칠 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기한 : 미리 정한 시기

고장 : 마을

초례 : 전통적으로 지내는 혼인 예식



with  
관찰

1.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일한 후, 라반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21절)

“...   한 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를 들게 해주십시오.  
  과 결혼하겠습니다.”

2. 라반은 야곱을 속여 레아와 결혼하게 한 후, 야곱에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또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나요? (27절)

“그러니 이제 동안 초례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동안 내가 맡기는  을 해야 하네.”

with  
생각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 집을 위해 7년을 일하면 딸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7년째 되던 해, 라반은 야곱을 속여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와 야곱을 동침하게 해요. 라반은 야곱을 속인 뒤, 7년을 더 일하면 7일 후에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고 제안했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던 야곱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야곱은 화가 났지만, 인내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다렸어요.

with  
결심

살다보면 우리가 원하는 일이 생각한 것보다 늦어질 수 있어요. 그 때, 화내고 짜증내기 보다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기로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제가 될게요.  
나의 기도 :

---

---

---

#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30:1-24 “하나님께 기도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4. 보리를 거두어들일 때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귀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조금만 나눠 줘요."
15.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까지 가져 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이기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16. 그 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그 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17.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 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18.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잇사갈이라고 하였다.
19.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서, 야곱과의 사이에 여섯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20.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여섯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 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블론이라고 하였다.
21.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22.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 주셨다.
23.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 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24.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호소: 억울한 상황을 남에게 호소연함

태: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난막, 태출 전체

with  
관찰

1. 레아는 어떻게 임신하여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나요?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를 들어 주심”

2. 하나님께서 라헬도 기억하여 긍휼히 여기시어 라헬에게 무엇을 해주셨나요? (22절)

“... 하나님이 라헬의   를 들으시고, 그의  를 열어 주셨다.”

with  
생각

하나님께서는 임신하지 못하던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임신하게 하셨어요.(17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라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라헬의 간구도 들어주셨  
어요. 남편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레아와 고통과 아픔이 있던 라헬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임신하게 되었어요.

with  
결심

여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임신할  
수 있게 하셨어요. 어려움 앞에서 그 여인들은 다른 어떤 방법을 찾기보다 기도했  
지요. 우리 또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  
하고 치료해 주실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어려울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래요.  
나의 기도 :

---

---

#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 . .

with  
말씀

창세기 30:25-43 “복주시고,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5.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 주십시오.
26. 장인 어른의 일을 해 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 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 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27.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 보고서 알았네."  
(생략)
29.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 드리고, 장인 어른의 **가축** 떼를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 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30.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 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떼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 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31.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 떼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32. 오늘,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 떼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 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 내고, 염소 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샅으로 주십시오.
33.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 어른께서 저에게 샅으로 주신 **가축** 떼를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 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가축**: 집에서 기르는 짐승

**살림**: 한 집안을 이루어 가는 일



with  
관찰

1.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 야곱이 라반에게 어떤 부탁을 했나요? (25절)

“제가   땅으로    수 있도록, 저를 보내 주십시오.”

2. 야곱은 장인 어른 라반의 소유가 불어나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30절)

“...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를 보시고서,  
장인 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with  
생각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씩 두 번을 장인의 집을 위해 봉사했어요. 14년째 되는 해, 야곱은 장인 라반에게 일한 대가(값)를 요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보내달라고 말했지요. 라반은 야곱 덕분에 자신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야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요. 야곱은 양과 염소 중 수가 적은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양은 검은 것)을 자신이 갖겠다고 해요.

with  
결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야곱 덕분에 라반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라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가 야곱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세요. 복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

---

---

#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창세기 31:1-42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려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3.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4.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 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5. 일렀다. "장인 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6.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 어른의 일을 해 드렸소.
7.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삿**을 열 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 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 (생략)
10. 가축 떼가 새끼를 뱉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숫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11.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12.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숫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13.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14.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품삿**: 일한 것에 대한 대가

**분깃**: 몫으로 나누어진 부분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조상의 땅, 친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명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3절)

“... 내가 너와   있겠다.”

2. 다음 중 잘못된 설명은?

- ① 야곱의 장인어른 라반은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었다.(7절)
- ②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7절)
- ③ 꿈에서 천사가 야곱을 부르기에 야곱은 모른 척 했다.(11절)
- ④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이상 없다 생각했다.(14절)

with  
생각

야곱은 지난 20년 간 장인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라반이 야곱을 소홀히 생각하고, 라반의 아들들까지 야곱을 욕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원래 살던 고향으로 가라 하셨고, 야곱은 그 뜻을 받아들여 아내들과 떠날 준비를 해요. 야곱은 20년이나 장인어른 라반의 집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야곱은 묵묵히 20년이나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어요.

with  
결심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살다보면 우리는 억울하고 화나는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조금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제가 될게요.  
나의 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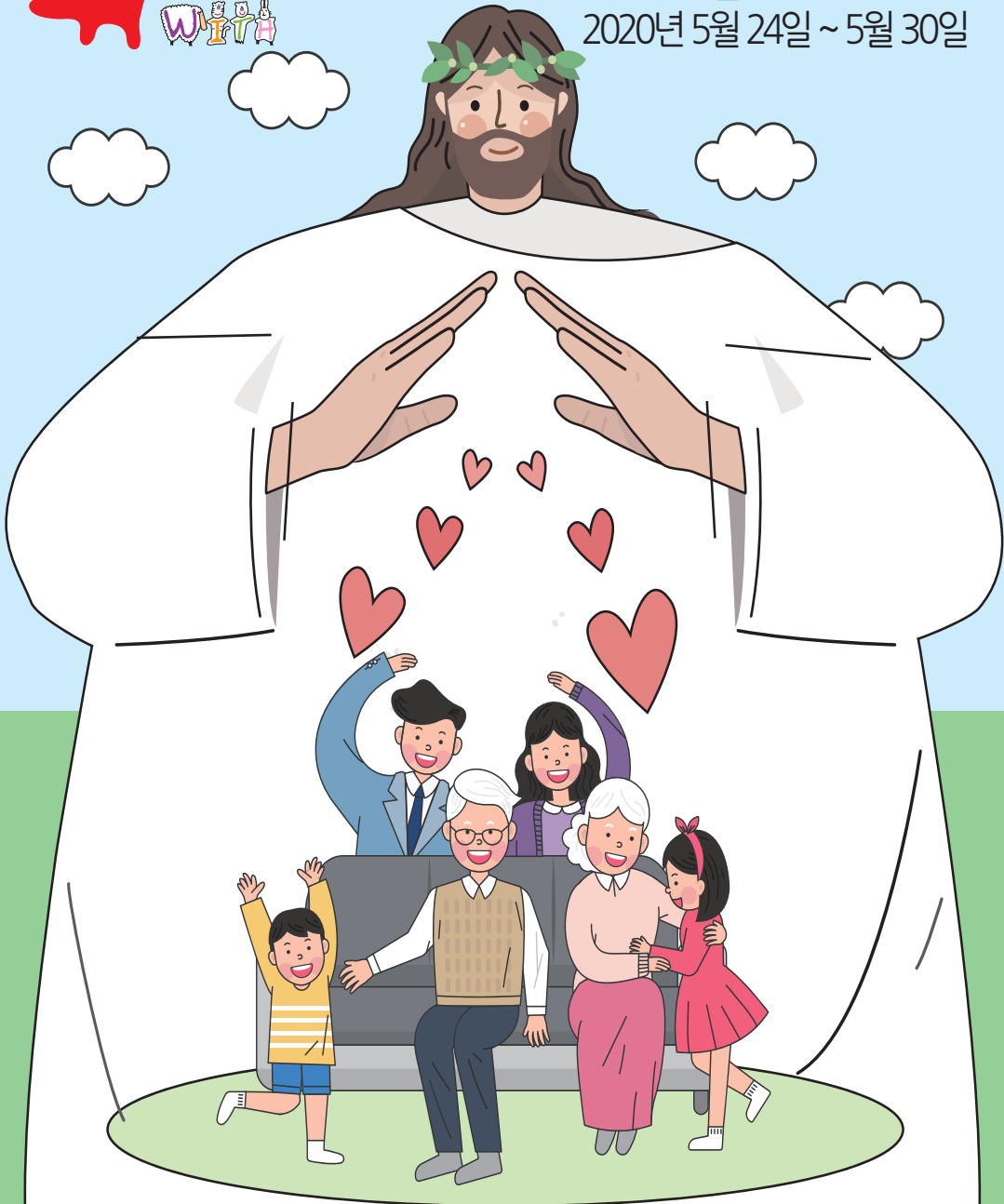
---

---

---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 로마서 14장 10절 -





# Memory Time



## 일기와 자서전

넷째주

♥ 주제 :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 암송구절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10절

♥ 오늘의 주제 일기와 자서전 ▷로마서 14:10-12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풀며 살아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바울은 형제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또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나요? (10절)
- ② 바울은 우리가 다 어디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나요? (10절)
- ③ 내 친구나 이웃을 비판하거나 무시한적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친구들을 받아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교육활동 - “그림일기”

준비물 - 활동지(별지), 펜

- ①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 받을 만한, 혹은 칭찬 받고 싶은 일을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일기를 써보세요.  
ex) 힘들게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할아버지를 뒤에서 밀어줬어요.  
소외당하는 친구를 사랑으로 도와줬어요.
- ② 작성한 일기를 선생님과 반 친구들과 나누어보세요.

# 가족과 함께하는

# Sweet Time



넛짜주

우리가 살면서 쉽게 할 수 있는 실수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예요. 다른 사람을 폄어주고 용서해주는 것은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단어 하나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고, 말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언젠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직접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된다면 정말 부끄럽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친구들을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보듬어 주어야 해요.

친구들! 다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주었던 아름다운 기억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눌 그 때를 기대하며, 날마다 사랑의 말을 하며 살아가길 소망해요.

##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이 이웃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주었던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나요? 가족들과 나누어보세요.

**Pray** 우리 가정이 다른 사람을 사랑의 말로 세워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게 해주세요.

# GOD'S TIME 1

## 넷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 . .



with  
말씀

창세기 31:43-55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요,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손자 손녀요, 이 가축 떼도 다 내 것일세. 자네의 눈 앞에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 있는 나의 딸들과 그들이 낳은 나의 손자 손녀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 이리 와서,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세."
-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 와서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 또 친족들에게도 돌을 모으게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 와서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었다.
-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사하두다라고 하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하였다.
- 라반이 말하였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일세." 갈르엣이란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 이 돌무더기를 달리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라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 바라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 자네가 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나의 딸들을 두고서 달리 아내들을 얻으면, 자네와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게."
- 라반은 야곱에게 또 다짐하였다. "이 돌무더기를 보게. 그리고 내가 자네와 나 사이에도 세운 이 돌기둥을 보게.
-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돌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네.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가서 자네를 치지 않을 것이니, 자네도 또한 이 돌무더기와 이 돌기둥을 넘어 내가 있는 쪽으로 와서 나를 치지 말게.
-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훔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 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언약: 약속

유래하다: 전해져 내려오다





with  
관찰

1. 라반은 야곱에게 무엇을 제안하였나요? (44절)

을 세우자고 제안함.

2.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한 언약의 내용 두 가지는 무엇이었나요? (50-52절)

- ① 라반의 딸들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줄 것.
- ② 일주일마다 한 번은 라반을 찾아올 것.
- ③ 두 딸 중에 한 명은 두고 갈 것.
- ④ 라반에게 좋은 이웃이 될 것.

with  
생각

야곱은 지금까지 외삼촌인 라반을 위해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러나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삼촌으로부터 도망치기로 결심했지요. 야곱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그를 뒤쫓아가 만나게 되었어요. 라반은 야곱에게 화를 내었지만 야곱은 잘못된 것이 없었기에 떳떳할 수 있었어요. 라반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언약을 맺자고 제안해요. 평화의 언약이에요. 야곱은 기꺼이 그 제안에 동의했어요.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평화의 약속에 동참하고 언약의 내용도 모두 라반이 정하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힘든 일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다투고 논쟁하는 것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세요. 야곱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라반에게 설명한 이후로는 더 따지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꺼이 그와 화해했어요. 우리도 갈등상황이 생길 때 야곱과 같은 선택을 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싸우고 쟁취하기보다 평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게요.  
나의 기도 :

---



---



---

# GOD'S TIME 2

##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32:1-12 “죄는 평안의 반대말”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3. 야곱이 에돔 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4.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 동안 라반에게 몸 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5.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 떼와 염소 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6.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사백 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7.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 떼와 소 떼와 낙타 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8.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9.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10.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좋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11.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12.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치려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7절)

걱정이 되었다.

2.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했나요? (7절)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주십시오.

with  
생각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기 전,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것이에요.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자, 에서의 보복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미리 종을 보내어 에서에게 자비를 구했어요. 또한 에서가 자신의 가족을 해칠 것을 대비하여 가족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어요.

with  
결심

야곱은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오랫동안 두려움에 떨었어요. 죄는 두려움과 불안을 만들어내요. 죄를 지은 사람은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앞에서 죄를 선택하지 않고 평안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요.  
나의 기도 : \_\_\_\_\_  
\_\_\_\_\_  
\_\_\_\_\_

# GOD'S TIME 3

##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32:31-32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 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뼈의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은 야곱에게 무엇을 물었나요? (27절)

“너의    무엇이냐?”

2.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28절)

with  
생각

야곱은 에서를 대면하는 힘겨운 문제를 눈앞에 놓고 혼자 남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큰 위기를 마주하고 있던 야곱은 복을 달라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 씨름했어요. 이 씨름은 몸으로 하는 씨름이기도 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또한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존재 자체를 포함하는 큰 의미를 지닌 것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야곱이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with  
결심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야 해요.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 또한 모든 문제 앞에서 혼자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릴 것을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모든 문제 앞에서 가장 위대한 해결사이신 하나님께 의지할게요.

나의 기도 :

---

---

---

# GOD'S TIME 4

##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 . .



with  
말씀

창세기 33:1-20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야곱이 고개를 들어 보니, 에서가 장정 사백 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2.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져 따라오게 하였다.
3.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일곱 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4.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5.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네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6.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7.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8.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족 떼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9.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10.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 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듯합니다."
11.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므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하므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간곡히** : 간절히, 정성스럽게

with  
관찰

1. 야곱은 에서에게 나아가면서 몇 번이나 절을 하였나요? (4절)

번

2. 에서가 야곱을 보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4절)

“달려와서 그를      ...”

with  
생각

야곱과 에서는 감동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에서는 야곱을 치려고 기세등등하게 무리를 이끌고 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순식간에 모든 미움과 원한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였기 때문이에요. 고향을 떠나 외삼촌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를 놓고 혼자 고민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러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에서와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었어요.

with  
결심

우리는 어떠한 사람과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해요. 말씀을 보고 기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 다른 문제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될게요.  
나의 기도 :

\_\_\_\_\_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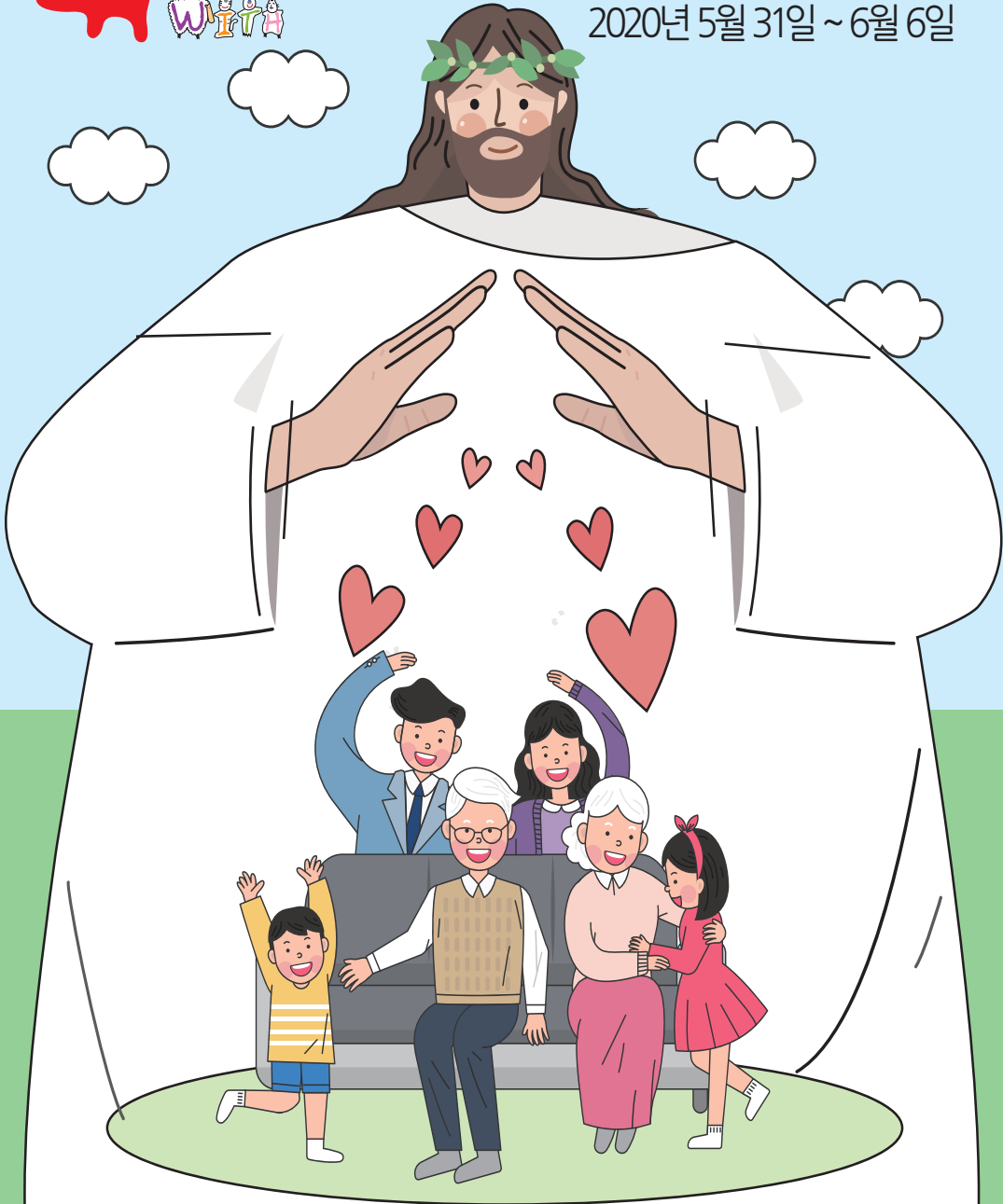
\_\_\_\_\_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 로마서 14장 10절 -





5월 다섯째주  
2020년 5월 31일 ~ 6월 6일



# Memory time



## 의에 주리고 목마름

### 다섯째주

♥ 주제 :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 암송구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 마태복음 5:6

♥ 오늘의 주제 의에 주리고 목마름 ▷ 마태복음 5:1-12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에서 가르치셨나요? (1절)
- ②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나요? (3절)
- ③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5절)
- ④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나요? (6절)
- 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가족과 함께하는

# Sweet Time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 곳에 모였어요.(1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6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의에 주리고 목마르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모습이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 위해 노력할 때,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채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친구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 토론하기

**Q1.**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다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Pray** 날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해주세요.

# GOD'S 다섯째주 TIME 1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창세기 34:1-35:15 “하나님께 돌아와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9.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10.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11.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12.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13.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14.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 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15.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하나님은 야곱의 새 이름을 무엇이라 지어주셨나요? (10절)

□ □ □ □

2. 야곱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던 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나요? (15절)

□ □

with  
생각

야곱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저의 아버지의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 이라고 맹세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해 주셨지요. 시간이 지나 야곱이 하나님과의 맹세를 30여년 만에 지키러 돌아왔어요. 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약속하신 축복을 내려 주셨지요.

with  
결심

살다보면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를 모른척 하지 않으실거예요.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따스하게 받아 주실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잘못하거나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 질 때에도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_\_\_\_\_

\_\_\_\_\_

\_\_\_\_\_

# GOD'S TIME 2

## 다섯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 . .

with  
말씀

창세기 35:16-37:11 “가정 안에서 사랑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붙여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2. 야곱의 역사는 이렇하다. 열일곱 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알려바치곤 하였다.
3. 이스라엘은 늘그막에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4.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 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5.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는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허물: 잘못 저지른 실수

늘그막: 늙어 가는 무렵

with  
관찰

1.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2절)

“... 아버지에게      하였다.”

2.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4절)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with  
생각

하나님은 약속하신대로 야곱에게 많은 아들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열한번째 아들로 요셉을 주셨지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이 잘못된 것이나 실수를 보고는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곤 했어요. 야곱 또한 막내인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고 다른 형제들에게 주지 않은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지요. 형들은 그런 요셉을 용서하거나 받아주지 않고 미워하고 말 한마디 다정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사랑하는 가정을 주셨어요. 그 가정 안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야 해요. 또한 그 사랑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돼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게 되어도 참아주고, 잠깐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받아들여 줘야 하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참아 주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저희 가정이 항상 화목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_\_\_\_\_  
\_\_\_\_\_  
\_\_\_\_\_

# GOD'S TIME 3 다섯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37:12-36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8.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 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19.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20.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 넣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21.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 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22.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 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23.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끈 그가 입을 화려한 옷을 벗기고,
24.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25.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 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26.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나?"
27.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파붙이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28.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스무 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냥 : 예전에, 엽전을 세 단 단위





with  
관찰

1.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어디에 던져 두었나요? (24절)

“그를 들어서    에 던졌다..”

2. 형제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얼마에 팔았나요? (28절)

은   냥

with  
생각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인해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부모님과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할 것이라는 꿈을 이야기하자 형제들은 요셉을 더더욱 미워하게 되었지요. 어느날 요셉이 심부름으로 형들을 부르러 갔을 때 형들은 요셉을 죽일 생각까지 하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요셉을 은 스무냥에 외국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 버렸어요.

with  
결심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자매나 다른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해 주어야 해요. 에베소서 4장에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밋거나 화가 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처럼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거나 화가 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용서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다른사람이 미워질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나의 기도 :

---

---

---

# GOD'S 다섯째주 TIME 4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창세기 38:1-30 “죄를 회개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들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2.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3.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4.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5.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
6.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7.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동침: 남녀가 함께 잠을  
잠

with  
관찰

1. 유다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3절)

2. 하나님께서 에르를 죽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므로...”

with  
생각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는 이방사람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첫째 에르가 태어났지요. 에르가 다말과 결혼한 후 하나님께서는 에르의 악함을 보시고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짓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유다의 맏아들이던 에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지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지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짓게 될 때가 있어요. 그 때에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거예요. 죄를 반복하지 않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나의 기도 :

---

---

---

---

## 가족과 함께하는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다음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3. 말씀을 다 읽은 뒤,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이야기해주세요.



## 말씀 &lt;이사야 40:28-31, 새번역&gt;

28. (생략)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29.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30.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31.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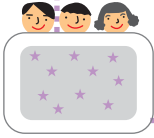
사랑하는 OO아(야), 잘 잤니?

오늘 본문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셔. OO이(가) 잠 잘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OO(이)를 지켜주시고,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복돋아주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OO(이)가 오늘을 살아갈 때,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OO(이)를 지켜주실 거야.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OO(이)가 되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밤에도 우리 OO(이)을/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침에도 우리 OO(이)을/를 위해 성실하게 햇빛도 비춰주시니 감사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날을 기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OO(이)를 지켜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OO(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가족과 함께하는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2.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3. 자리에 누워서, 친구에게 말씀을 읽어주세요.
4.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 찬양 &lt;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두란노 경배와 찬양 번역&gt;

- |  |   |
|--|---|
| 1.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br>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br>새 부대가 되게 하여주사<br>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 2.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br>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br>나의 맘 깨끗케 씻어 주사<br>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
|--|---|

후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것

사랑하는 OO(아), 오늘 하루 잘 지냈니?

오늘 들은/읽은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OO(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원해. 엄마, 아빠는 우리 OO(이)가 엄마, 아빠 품에 처음 안겼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기쁘고 행복해.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 하실까? 잠들기 전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행복해하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 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 OO(이)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만큼 우리 OO(이)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기쁨이 되는 OO(이)가 되자.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OO(이)을/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들은/읽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OO(이)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원해요.

이제 우리 OO(이)가 잠자리에 들려 합니다. 나쁜 꿈꾸지 않고, 푹 잘 자서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일도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하루를 살아가는 OO(이) 되게 해주세요.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FUN FUN PLAY

## 암 호 풀 기

1. [힌트]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2. 아래의 문양기호 중 '♡'에 색칠하고 숨겨진 글자를 찾아보세요.
3. 정답 부분에 숨겨진 글자를 적어보세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말씀 풍선

1. 말씀 풍선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 시편 128편 1절을 찾아 해당하는 단어를 바구니에 줄로 연결해보세요.
3. 연결 한 후, 바구니 속에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적어 보아요.







5월 QT +

STIC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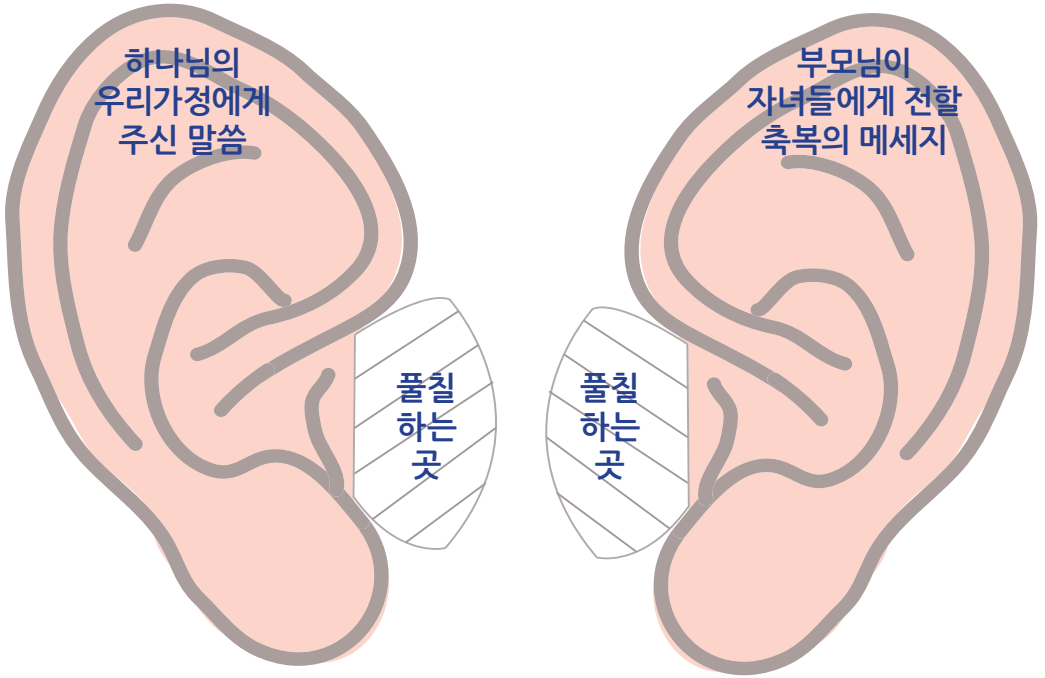
부 학년 반

이름 :



GOD'S TIME	1	2	3	4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정

← 절취선



# ○○(이)의 그림일기

년	월	일	요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 로마서 14장 10절 -



